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Family Functioning on the Exposure of Domestic Violence in Children

김경신 · 김정란*
전남대학교

Kim, Kyeong Shin · Kim, Jeong R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violence.
The SPSS 10.0 for Windows was used to analyze data obtained through 1,044 children who live in Gwangju · Chonnam area.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Wife abuse and child abus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amily cohesion, family flexibility, and family-system types.
2. In family violence non-experience group, 'balanced family' was found in 36.2% of the sample and 'extreme family' in 7.8%. In family violence experience group, 'balanced family' was found in 12.7% of the sample and 'extreme family' in 15.4%.
3.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violence.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wife abuse and child abuse.

Key Words :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exposure of domestic violence in children.

Ⅰ. 서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나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2004년 7월 1일을 기해 6주년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법적 장치가 가정폭력 감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폭력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99년 11,850건, 2000년 12,983건, 2001년 14,583건, 2002년 15,151건, 2003년 16,408건으로 해마다 10~12% 가량 계속해 늘고 있는 추세다(경향신문, 2004). 이러한 추세에 대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확산과 이에 대한 신고의식 확산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법적 ·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가정폭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체계적 접근에서 가족은 상호의존적인 요소로 구성된 역동적 조직체이기라고 보며, 체계이론가들은 폭력을 가족체계의 산물로 간주하고 가족 내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폭력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한편 Olson, Sprenkle, 그리고 Russell(1979)은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순환모델(Olson's Circumplex Model)을 개발하였는데, 가족기능에 관련된 요인으로 응집성과 적응성이 중심 축으로, 의사소통은 촉매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Olson의 순환모델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중간 수준인 가족이 순기능 가족이며, 둘 다 너무 낮거나 높은 극단적 수준인 가족은 역기능 가족이라는 곡선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모델이 개발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판 중의 하나가 모델의 주요가설인 곡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Olson(1991)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이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 Corresponing author: Kim, Jeong Ran
Tel: 062)530-1320, Fax: 062)530-1329
E-mail: kjr@jnu.ac.kr

문화에는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유형과 가족기능 수행과의 관계가 인종 및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가족 내 규범적 기대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임상적 일반가족의 경우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가족기능 사이에 직선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족을 중심에 두고 난 후에 그 외 법체계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가족기능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곡선적 가설이 아닌 선형적 가설에 입각한 Olson의 수정모델에 근거하여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정을 중심으로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가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가족복지적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기능에 따른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차이는 어떠한가?
2.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 개방체계로 보고 가정 밖의 환경 및 하위체계들간의 상호작용에 역점을 둔 가족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파생된 개념이다(Paolucci, Hall, & Axinn, 1977). 따라서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체계론적 관점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을 강조하고, 가족체계의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기능하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족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중 대표적으로 적용되어 지고 있는 순환모델은 Olson과 그의 동료들(1979)에 의해 개발되어졌다. 이 모델은 부부 및 가족치료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가족기능에 대한 여러 개념들로부터 귀납적으로 개발되었는데, 가족기능 및 가족역동성을 설명해 주는 많은 개념들 가운데 공통되는 것을 분류,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 차원,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의사소통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가족의사소통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두 가지 핵심차원의 변화 또는 수정을 촉진하는 요소로 간주되어 제외되고, 응집성과 적응성만이 모델의 두 가지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순환모델의 두 가지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족응집성(cohesion)은 가족원이 서로에 대해 갖는 정서적인 결속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적응성(adaptability)은 처음에는 가족원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또는 발달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긴장에 대응하여 가족관계에서의 힘의 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의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ability to change)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다가 가족의 리더쉽, 역할관계들, 관계규칙들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amount to change)으로 재정의 되었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 및 적응성의 정도에 따라 네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Olson은 순환모델을 토대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수준에 따라 가족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초기 순환모델에 의한 가족유형분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두 차원이 중간 수준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때 가족이 가장 기능적임을 나타냄으로써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기능 사이의 관계를 곡선적 관계로 설명하였다(Olson, Russell, & Sprenkle, 1983).

하지만 Olson의 순환모델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는 곡선성을 지지하는 연구들(김수연·김득성, 1999; Rodick, Henggeler, & Hanson, 1986)와 선형성을 지지하는 연구들(Minuchin, 1974; Shir, 1999)로 양분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순환모델이 개발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모델의 주요가설인 곡선성에 대한 비판을 뒷받침해주었다. 결과적으로 Olson(1991)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이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에는 높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족유형과 가족기능 수행과의 관계가 인종 및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으로 가족 내 규범적 기대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임상적 일반가족의 경우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가족기능 사이에 직선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수정모델인 삼차원 순환모델(Three-Dimensional Circumplex Model)을 제시하였다.

삼차원 순환모델은 Bevers의 Systems Model과 유사하게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기능 사이의 선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모델에 의하면 가족체계 유형은 FACES Ⅲ의 점수에 따라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균형 가족의 3종류의 가족체계로 나누어 체계유형을 연구하거나(Olson, 1991), 극단 가족, 중간범위 가족, 약간 균형적인 가족, 균형 가족의 4종류로 나누어 연구할 수도 있다(Olson, McCubbin, Barnes, Larsen, Muxen, & Wilson, 1992).

2. 가정폭력 노출

가정폭력 노출이라 함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행해지는 폭력피해의 직접적인 경험과 다른 구성원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관찰하거나 목격하는 간접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자녀의 입장에서 폭력피해를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내학대일 것이다.

아동학대와 아내학대의 개념 및 실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분류되어 정의되는데, 먼저 신체적 학대란 구타와 동일 개념으로 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부터 칼로 찌르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심리적 학대는 말로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위협하면서 심리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학대는 성기노출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적 공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가 그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학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아동학대라는 용어 대신 '자녀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의 네 가지 학대 유형 중 보다 가시적이고 빈도가 높은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 방임으로 그 관심 영역을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학대란 '부모가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행하는 신체적, 심리적 위해 행위를 말한다. 즉, 이러한 행위는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위협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녀학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학대유형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심리적 학대 발생률 84.7%, 체벌 발생률은 74.6% 등 자녀의 50% 이상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자녀학대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1; 이재연, 2000).

다음으로 아내학대 개념에 대한 논의는 아내학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일부 연구자들(신영화, 1999; 신은주, 1995)은 아내학대의 개념을 정의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학대의 대상이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아내학대는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관계가 없는 전 배우자, 동거 중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학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넓혀 범주화하고 있다. 둘째, 학대의 의미이다. 학대 행동의 기능이 피해자에 대한 통제와 힘의 행사라는 점에서, 폭력 행동뿐만 아니라 비폭력적인 다양한 행동이 학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학대의 범위이다. 학대는 어의적으로 밀거나 따귀를 때리는 것에서부터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위해 행위 및 비난과 욕설, 성적 압력 등과 같은 비신체적(심리적, 성적)인 위해 행위를 포함한다. 넷째, 학대행위의 반복성 여부이다. 행위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반복적이냐도 중요한 분류의 기준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폭력의 경우는 단 1회일지라도 모두 학대성 폭력으로 간주하는 방법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과 같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폭력만을 학대성 폭력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학대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자녀가 목격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학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아내학대라는 용어 대신 '어머니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어머니학대를 '아버지에 의해 어머니에게 행해지는 년 1회 이상의 신체적, 비신체적 위해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대유형은 심리적, 신체적 학대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심리적 학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포에 몰아넣고, 심리적인 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되며, 신체적 학대에는 가볍게 밀기에서부터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폭력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학대 실태를 살펴보면, 심리적 학대 81.1%, 신체적 학대 37.6%-39.2%, 성적 학대 47.4%로 나타나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학대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란, 2002;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 1999).

본 연구는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자녀학대 피해를 통한 직접경험과 어머니학대 목격을 통한 간접경험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3. 가족기능과 가정폭력

가족체계의 맥락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가족 내부의 갈등, 스트레스 또는 가족관계상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Gelles, 1974; Straus, 1971). 즉,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는 가정폭력을 개인적 병리나 부적응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가족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가 역기능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서, 가정폭력의 소재지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가족체계 기능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가정폭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아동학대가 낮은 응집성 및 적응성 등과 같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Garbraino, Sebes, & Schellenbach, 1985; Pelcovitz, Kaplan, Samit, Krieger, & Cornelius, 1984). 그리고 Reid,

Sigurdson, Wright와 Christianson-Wood(1996)는 학대의 심각성은 개인과 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가정폭력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FACEⅢ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여 역기능적인 가족에서 가정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지만, Olson 모델의 곡선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폭력부부와 비폭력부부의 가족기능을 비교한 김수연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 응집성의 경우 비폭력부부는 유리는 낮고 연결은 높은 반면, 폭력부부는 혼돈은 높고 연결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적응성의 경우 비폭력부부는 혼돈은 낮고 융통은 높은 반면, 폭력부부는 혼돈은 높고 융통은 낮게 나타났다. 가족체계 유형에서는 비폭력부부는 폭력부부에 비해 균형을 이룬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고, 극단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폭력부부와 비폭력부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이 지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학대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Shir(1999)의 연구에서 피해여성들의 가족응집성의 경우는 유리된 수준으로 분류되었으며, 적응성의 경우는 경직된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이상적 수준으로 응집성은 속박의 수준을, 적응성은 혼돈의 수준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elcovitz, Kaplan, Ellenberg, Labruna, Salzinger, Mandel, 그리고 Weiner(2000)의 연구에서도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이 학대를 받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과 가정폭력 사이의 선형성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선형성을 인정한 Olson의 수정모델에 근거하여 FACEⅢ를 사용해서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가족원 중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총 1,044명)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학생	520(49.8)	학년	초등 4학년	134(12.8)
	여학생	524(50.2)		초등 5학년	175(16.8)
연령	10~11세	148(14.2)		초등 6학년	175(16.8)
	12세	183(17.5)		중등 1학년	251(24.0)
	13세	230(22.0)		중등 2학년	154(14.8)
	14세	201(19.3)		중등 3학년	155(14.8)
	15세	160(15.3)		초등학생	484(46.4)
	16세	122(11.7)		중학생	560(53.6)
	평균	13.38세	거주지	대도시	795(76.1)
가정 경제 상태†	하류층	80(7.7)		중소도시	77(7.4)
	중류층	933(89.4)		군/읍/면	172(16.5)
	상류층	23(2.2)	가족 형태	핵가족	830(79.5)
부연령†	35세 이하	17(1.7)		확대가족	214(20.5)
	36~40세	162(16.6)	모연령†	35세 이하	70(7.3)
	41~45세	531(54.4)		36~40세	428(44.7)
	46세 이상	267(27.3)		41~45세	395(41.2)
	평균	43.67세		46세 이상	65(6.8)
부학력†	중졸 이하	71(7.1)		평균	40.45세
	고졸	351(35.0)	모학력†	중졸 이하	91(9.1)
	대졸	450(44.8)		고졸	542(54.0)
	대학원졸	132(13.1)		대졸	305(30.4)
부직업†	생산직	200(19.5)		대학원졸	66(6.6)
	농/어업직	70(6.8)	모직업†	생산직	22(2.1)
	서비스/판매직	143(13.9)		농/어업직	36(3.5)
	사무직	358(34.9)		서비스/판매직	212(20.5)
	반전문기술직	99(9.6)		사무직	114(11.0)
	관리직	77(7.5)		반전문기술직	61(5.9)
	전문직	62(6.0)		관리직	13(1.3)
	무직	18(1.8)		전문직	17(1.6)
				주부	557(54.0)

†표시된 항목의 퍼센트는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퍼센트임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520명으로 49.8%를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은 524명으로 50.2%를 차지하였다. 연령의 경우는 13세가 230명(22.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3.38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이 560명(53.6%)으로 초등학생(484명, 46.4%)에 비해 좀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89.4%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76.1%가 대도시에 살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830명, 79.5%)가 핵가족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3.67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0.45세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450명, 44.8%)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542명, 54.0%)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358명, 34.9%)이,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557명, 54.0%)가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다.

2. 조사도구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er, 그리고 Lavee(1985)가 개발한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Ⅲ(FACESⅢ)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홀수문항은 응집성을 측정하기 이한 항목, 짝수문항은 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각 10문항으로 되어 있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비교적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집성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적응성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5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 방법은 Olson 등(1992)이 새롭게 제시한 방침을 적용하였다. 가족체계 유형 역시 이들이 제시한 대로 가족응집성 점수와 적응성 점수의 합을 2로 나누어 기준에 맞춰 분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 가정폭력 노출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가정폭력 직접경험과(자녀학대 피해)과 가정폭력 간접경험(어머니학대 목격)을 조사하였다. 가정폭력 직접경험은 장화정(1998)이 사용한 척도를 중심으로 신체적 학대 6문항, 심리적 학대 10문항, 방임 10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폭력 간접경험은 Straus, Hamby, Boney-McCoy, 그리고 Sugarman(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이용하여 심리적 학대 5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척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없었음 0점, 1년에 한두번 1점, 1달에 한두번 2점, 1주에 한두번 3점, 거의 매일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Cronbach's α=.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신뢰도 및 평균은 <표 3>과 같다.

<표 2> FACESIII 집단분류

구분	집단분류			
가족응집성	과잉분리 (disengaged)	분리 (separated)	연결 (connected)	일체 (enmeshed)
가족적응성	경직 (riged)	구조 (structured)	융통 (flexible)	매우 융통 (chaotic)
가족체계유형	극단	중간	약간 균형	균형
분류기준	최하점~(M-SD)	(M-SD)~M	M~(M+SD)	(M+SD)~최상점

<표 3> 가정폭력과 가족기능의 신뢰도 및 평균

변인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α)	평균
가족응집성	10	1~50	.88	35.94
가족적응성	10	1~50	.85	32.40
가정폭력 직접경험(자녀학대 피해)	26	0~104	.90	6.48
가정폭력 간접경험(어머니학대 목격)	12	0~48	.90	2.43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생 4~6학년 600명과 중학교 1~3학년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광주지역은 4개 구 각 1개의 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씩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전남지역은 목포와 화순지역 학교 3곳에서 학년별 1개 학급씩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중학생의 경우는 광주지역은 4개 구 각 1개의 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씩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전남지역은 화순지역 학교 1곳에서 학년별 2개 학급씩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부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여 초등학생 484명, 중학생 560명, 총 1,044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 1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기능과 가정폭력 노출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단일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가족기능에 따른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차이

가족기능에 따른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가족응집성의 경우 과잉분리가족의 자녀가 가정폭력 직·간접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집성이 낮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일체가족의 자녀가 가정폭력 직·간접경험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집성이 높은 가정이 가정폭력의 정도가 가장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적응성의 경우는 경직가족의 자녀가 가정폭력 직접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직가족과 구조적 가족의 자녀가 가정폭력 간접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융통적 가족의 자녀가 가정폭력 직·간접경험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성이 뛰어난 가정이 가정폭력 노출의 정도가 가장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체계유형의 경우는 극단가족의 자녀가 가정폭력 직·간접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균형가족의 자녀가 가정폭력 직·간접경험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기능적인 가정의 자녀가 가정폭력 노출위험이 높고, 기능적인 가정의 자녀가 가정

<표 4> 가족기능에 따른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차이

	구분	가정폭력 직접경험		가정폭력 간접경험	
		M	Duncan	M	Duncan
가족 응집성	과잉분리가족(140)	12.14	a	4.76	a
	분리가족(339)	7.50	b	2.96	b
	연결가족(405)	5.00	c	1.84	c
	일체가족(160)	3.13	d	.73	d
	F값 및 유의도	30.10***		25.18***	
가족 적응성	경직가족(162)	10.98	a	3.69	a
	구조적 가족(384)	7.40	b	3.02	a
	융통적 가족(329)	4.95	c	1.88	b
	매우융통적 가족(169)	3.07	d	.93	c
	F값 및 유의도	25.01***		14.55***	
가족 체계 유형	극단 가족(150)	11.85	a	4.58	a
	중간 가족(376)	7.38	b	2.80	b
	약간균형 가족(352)	4.96	c	1.87	c
	균형 가족(166)	2.84	d	.81	d
	F값 및 유의도	30.37***		22.03***	

*** p<.001

폭력 노출위험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에 따라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유형 모두 가장 낮은 점수집단에서 가정폭력 노출의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가족체계 유형 모두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 순으로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정도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기능이 저하된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Olson의 삼차원 순환모델의 선형적 가설을 지지하였다.

2.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표 5>, <표6>과 같다.

가족응집성의 경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가족응집성이 낮을수록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응집성이 자녀의 가정폭력 직접경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9%이며, 가정폭력 간접경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8%였다.

가족적응성 역시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적응성이 낮아질수록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적응성이 자녀의 가정폭력 직접경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8%이며, 가정폭력 간접경험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5%였다.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모두 가정폭력 간접경험보다는 가정폭력 직접경험에 미비하지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학대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목격하지 않은 부분이 본 연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족기능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1인이 아니라 또 다른 학대의 피해자인 어머니와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등을 포함한 학대가정 가족구성원 전체를 포함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하여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가정폭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가족기능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은 가정폭력과 부적인 선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데는 가족기능의 곡선적 모형보다 직선적 모형이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표 5> 가족응집성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

	B	β	t값	R^2	F값
가정폭력 직접경험	-.34	-.30	-10.10***	.09	102.00***
가정폭력 간접경험	-.16	-.28	-9.49***	.08	90.05***

***p<.001

<표 6> 가족적응성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

	B	β	t값	R^2	F값
가정폭력 직접경험	-.33	-.28	-9.54***	.08	90.96***
가정폭력 간접경험	-.12	-.21	-7.05***	.05	49.68***

***p<.001

V. 결론

본 연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족을 중심에 두고 난 후에 그 외 법체계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선형성을 인정한 Olson의 수정모델에 근거하여 FACEⅢ를 사용해서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학생 4~6학년 484명과 중학교 1~3학년 560명, 총 1,044명을 대상으로 가족기능과 가정폭력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가족응집성이 낮은 가족에서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가족원간의 정서적 친밀감 결여, 가정 내 공감이나 따스함의 부족이 폭력가정의 주요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족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원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 가족적응성이 낮은 가족에서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Williamson, Borduin, 그리고 Howe(1991)은 아동에 대한 유기,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는 가족 내 높은 경직성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계에 필수적인 가족적응성이 부족한 가족은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 주목하여, 개별가족은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사건에 대해 변화가 요청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극단가족에 속하는 자녀집단이 다른 가족체계유형에 속하는 자녀집단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가정폭력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극단가족에 속하는 자녀들은 균형가족에 속하는 자녀들에 비해 가정폭력 직접경험은 4.2배, 가정폭력 간접경험은 5.7배정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가족기능이 악화된 가족은 근거로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족기능이 악화된 폭력가정일 경우에는 법적 대처나 개인의 심리치료만으로는 가족관계나 가족의 건강성이 완전히 회복될 수 없으며,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폭력가정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치료 및 상담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같은 가족기능이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기능강화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가정폭력 경험은 자녀의 인성에 영향을 주고 자녀가 성장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후에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므로 가족기능을 정상화하는 가족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족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개별가족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가족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가족복지가 특정 소수 계층이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과 가정폭력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사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개별 지자체에서는 가족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족발달주기에 따른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응집성과 적응성의 매개요인인 가족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외부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시키는 등-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가족기능이 가정폭력과 부적인 선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Olson의 삼차원 순환모델의 선형적 가설을 지지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Olson의 순환모델을 근거로 한 대다수의 연구들이 곡선성과 선형성을 두고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이나 조사도구의 차이는 있으나 김수연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는 부부폭력과 가족기능 사이에는 곡선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이나 학대유형 등을 좀 더 다양화하여 가족기능과 가정폭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Olson의 수정모델에 근거하여 FACEⅢ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가정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즉 가정이 얼마나 응집성이 있고 적응성이 있는가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역기능적 가정의 경우 기능적 가정으로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가족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FACEⅢ를 이용하여 일반집단뿐만 아니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서 FACEⅢ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실시되어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분석을 통해 Olson모델의 선형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

참 고 문 헌

경기개발연구원(2001).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경향신문. 2004년 6월 2일자.

김수연, 김득성(1999). 순환모델에 따른 비폭력부부와 폭력부부의 가족기능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41-255.

김정란(2002). 아내학대에 대한 부부체계적 접근. 전남대 박사논문.

신영화(1999). 학대받는 아내의 능력고취를 위한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서울대 박사논문.

신은주(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

회사업적 분석. 서울대 박사논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재연(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부.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척도 개발. 숙명여대 석사논문
Garbraino, J., Sebes, J., & Schellenbach, C.(1985). Family at risk for destructive parent-child relations in adolescence. *Family Process, 24,* 385-398.
Gelles, R. J.(1974). The violent home: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Beverly Hills, CA: Sage.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Olson, D. H., Porter, J., & Lavee, Y.(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Family Inv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41.
Olson, D. H.(1991). Commentary: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Ⅲ. *Family Process, 30,* 74-79.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MN.
Olson, D. H., Russell, C.,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s: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3.
Paolucci, B., Hall, O. A., & Axinn N. W.(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John Wiley & sons INC.
Pelcovitz, D., Kaplan, S. J., Ellenberg, A., Labruna, V., Salzinger, S., Mandel, F., & Weiner, M.(2000). Adolescent physical abuse: Age at time of abuse and adolescent perception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4), 375-389.
Pelcovitz, D., Kaplan, S. J., Samit, C., Krieger, R., & Cornelius, D.(1984). Adolescents abuse: Family structure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ic Child Psychiatry, 23,* 85-90.
Reid, G., Sigurdson, E., Wright, A., & Christianson-Wood, J.(1996). Risk assessment: Some Canadian findings. *Protecting Children, 12,* 24-31.
Rodick, A., Henggeler, S. W., & Hanson(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Shir, J. S.(1999). Battered women's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their current and ideal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1), 71-82.
Straus, M. A.(1971). Some social antecedents of physical punishment: A linkage theory interpre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58-663.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Williamson, J. M., Borduin, C. M., & Howe, B. A.(1991). The ecology of adolescent maltreatment: A multilevel examination of adolescent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49-457.

(2004. 08. 31 접수; 2004. 10. 12 채택)